

충북낙협, 집유장 준공식 개최

충북권역 새 집유 조합으로 지정된 충북낙협은 지난 11월 22일 집유장 준공식을 갖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원유품질과 능



동적 조합상 만들기에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충북낙협은 지난 11월 1일부터 청주우유 파산 이후 건국우유가 대행해오던 충북권역 집유업무를 인계받은 바 있다. 신관우 충북낙협 조합장은 "국제화 시대 낙농산업의 정책적 보호보다 낙농가 자구노력이 더 중요해지고 최근 개편논의가 진행 중인 수급조절체계(안)에서 낙농조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집유장 준공을 계기로 능동적인 품목조합으로서의 역할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저한 집유위생 관리와 농가 지도업무로 원유품질 및 위생수준 제고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신 조합장은 "국제화 시대 낙농산업의 정책적 보호보다 낙농가 자구노력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낙농조합과 유업체는 기존의 대립 관계를 벗어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충북도과 농림부 등 각계 각층의 도움 뿐 아니라 건국유업의 긴밀한 협조로 집유장 준공식이 개최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농지법 개정 입법 취지 공감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법개정안에 대해 농림부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 국회에서 더욱 보완된 개정안을 재심의키로 해 축산인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우남의원)는 지난 25일 이명수 농림부차관을 비롯 관계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어 농지법개정안을 놓고 심의를 벌인 결과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다음 회기 소위에서 심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차관은 "조일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농지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는 친성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와 법체계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해결되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병엽의원(열린우리, 경기 화성)은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축산을 하는 농민이 갈 곳이 없게 됐다"며 "농지에 가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 등판수수료 2천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등급판정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 이하 등판소)는 지난 11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등급판정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의결했다.

의결된 수수료 인상 내역은 소 2천원(1두 기준, 기존 1천6백원), 돼지 4백원(1두 기준, 기존 300원), 계란 5만개당 5만원(기존 10만개당 5만원), 5만개 이상은 개당 1원(기존 10만개 이상 개당 0.5원), 그리고, 소 부분육이 박스당 300원이다. 이로써 등판소 의결내용은 농림부를 통해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생산자단체, 규제혁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 후 행정자치부가 결과를 고시하게 된다. 등급판정 수수료 인상 고시는 12월 중순경

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 인상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수수료에 따라 등급판정이 이뤄지게 된다.

식품행정체계 개편 본격화

정부는 이른바 기생총알 김치파동을 계기로 식품행정체계 개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원점에서 식품행정체계 개편을 논의, 매주 차관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금년말에 최종 마무리지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개안을 마련, 국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으로 이중 1안의 내용은 모든 식품업무는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농식품안전관리청'을 신설하고, 의약업무는 복지부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다. 2안은 총리실 산하에 '식품관리처'를 만들어 모든 식품 행정은 이 기관에서 담당토록 하는 내용이고, 3안은 모든 식품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4안은 위해평가 및 기준을 한군데로 통합 관리토록 하는 것이고, 5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안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느 한 가지 안에 대해 선입관을 갖고 지지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T/F팀을 구성, 식품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뛰어들어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필요하다면 농림부 명칭도 농업식품농촌부로 개칭할것을 염두에 두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식품행정체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구제역 청정 재확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우리나라의 종축우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구제역에 대해 음성으로 나타나 구제역 청정화를 재확인했다.

검역원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의 한우와 유우 종축장 8개소와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2개소, 축산기술연구소 4개소에 대해 각각 35두씩 종축우 521두에 대해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증 받았으며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적인 예찰활동과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혈청검사는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일반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혈청검

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부 90.4%, 음식점 원산지 표시 필요

우리나라 주부들은 농축산물의 가격과 원산지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음식점의 육류와 김치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코리아리서치를 통해 농협 농축산물에 대한 주부들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달 20일부터 4일간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1천2백명의 가정주부(만25~59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식점에서의 고기와 김치 원산지 표시제도는 94.7%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부들은 국산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산 대비 약 28% 정도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평소 주부들은 90.4%가 농축산물의 가격과 원산지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마사회 부회장에 김도훈씨 감사에 노승대씨, 임명

농림부는 지난 21일 KRA(한국마사회) 부회장에 김도훈(52) 부산경남 경마본부장을, 감사에 노승대(56) 전 감사원 제1사무차장

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김도훈 KRA 부회장은 경남 양산출신으로 경남공고, 아주대 공업경영학과를 나왔으며 창원시 의원, 노무현대통령후보 경남선대위 부분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KRA 부산경남 경마본부장을 맡아왔다. 신임 노승대 상임감사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남성고, 전북대 경영학과, 미 조지워싱턴대 (회계학 석사)를 나왔으며 감사원 제1사무차장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삼일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또 공석이 된 부산경남 경마본부장에는 배응기 전 부산시 강서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1회 ilovemilk 전국 어린이 영어스피치 콘테스트 개최

농림부와 낙농진흥회는 어린이들에게 우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영어말하기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제1회 ilovemilk 전국 어린이 영어스피치 콘테스트'를 실시한다.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우유의 좋은 점, 우유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발표시간 4분을 기준으로 영어원고를 작성하여 낙농진흥회(www.ilovemilk.or.kr)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원고심사와 녹음테이프 심사 등

을 거쳐 20명이 참가하는 최종본선은 미국인 아이작 더스트씨 사 회로 12월 18일 서울 능동 리틀엔젤스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 최고상인 대상 1명에게는 농림부장관상과 장학금 100만원이 주어지는 등 본선 수상자 20명에게는 총 67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박홍수 장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만전" 당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국내는 물론 최근 국제회의에서도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등 세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11월 11일 방역관련기관과 학계 전문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및 가금산물 수급안정대책 점검회의'에서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방역기관과 농가들이 소독 등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만일 국내 발생할 경우 수시간내에 농장단계에서 퇴치가 완료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호주산 생우 또 수입

내달 중순 호주산 생우 800여마리가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한우협회에 따르면 대전 소재 소 중개인 이모씨가 호주산 생우를 수입해 기존 호주산 생우 입식지역인 경북 경주와 경남 김해 등지에 입식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호주산 생우 수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호주산 생우를 수입한 업자는 소만 판매하면 손해볼 것이 없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 생우를 입식한 농가들은 한우농가들의 반발과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호주산 생우 수입은 2001년 처음 2차례에 걸쳐 1,338마리가 수입된 후 매년 지속적으로 수입 추진돼 왔다.

낙농기술세미나 「한국낙농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개최

경남낙농기술산학연구회(회장 박충생/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는 지난 11월 29일(화) 11시부터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관에서 '한국낙농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2005년도 동계 낙농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집유체계 개편과 관련한 농림부 시안 및 협회 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협회 이명환 이사 등 지역낙농인 및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경상대 박충생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농림부 축산경영과의 송광현 사무관의 '낙농산업 정책방향' 및 한국낙농육우협회 배정식 차장의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대책 협회 시안'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뒤이어 이어진 청중토론 시간에서 하동지역의 한 농가는 현재의 낙농진흥회를 답습한 농림부 시안의 낙농위원회 체제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협회시안대로 선진국형 원유판매위원회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강력 주장하였고, 산청지역의 한 농가는 농림부 시안대로 낙농조합과 유업체간 직접거래 형태로 갈 경우 생산자의 거래교섭력 상실과 이에 따른 국내낙농기반 붕괴 우려를 지적하는 등 농림부 시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와는 별도로 사천지역의 한 농가는 생산자의 권익대변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체 낙농인의 일치단결과 이에 따른 협회의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협회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농협 '유기농 우유' 본격 시판

자연방목 상태에서 유기농사료를 먹고 자란 젖소가 생산한 유기농 우유를 농협이 지난 11월 14일부터 본격적인 시판에 나섰다.

농협 축산컨설팅부는 안성목장에서 유기축산으로 생산한 원유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난 4일 유기원유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유기농우유는 1리터에 6900원에 고가에 판매되며 1일 250병정도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고온살균하는 일반우유와 달리 영양소 파괴를 최대한 방지하고 천연 유기농우유 고유의 맛을 유지기 위해 저온살균처리기술로 생산됐으며 포장용기도 신선도와 맛 유지를 목적으로 유리병 용기를 사용했다. 농협 안성목장은 현재 젖소 25두를 자연방목해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총 5만7000평의 유기농조사료를 직접 재배해 유기농조사료를 100% 자체 조달하고 있다.

(발췌 : 축산신문, 농축산신문, 농어민신문)